

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

협회지 제 46-1호 2003년 1월 9일(목)

제목1 : 새해 달라지는 축산정책들

올해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축산정책도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. 가축질병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둔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서부터 농장·마을 질병 관리 등급제 도입과 전 도축장에서 HACCP 시행에 이르기까지 안전축산물 생산과 유통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져 있다.

■한우다산장려금

지급단가가 종전에는 3~4산 두당 20만원, 5산이상 두당 30만원에서 1월 1일부터는 3~4산 15만원, 5산이상 20만원으로 조정된다.

이는 보조성사업 지급액 축소로 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.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등 보조성 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하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우수품질 한우(거세우기준)에 대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.

아울러 거세장려금과 품질고급화장려금의 이중지급 방지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.

■거세장려금

지원대상이 종전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거세하는 자로 하던 것이 1월 1일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12개월령 이내 거세하는 자로 조정된다. 단 6월 30일까지 거세한 수소에 한해서는 지급후 사업이 종료된다.

■축분비료유통센터 지정 및 장비지원

종전에 없던 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1월 1일부터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정 및 장비지원을 40개소에 80억원이 지원된다. 지원조건은 보조 40%·지방비 40%·자부담 20%이며, 지원장비는 버큘카, 액비살포, 차량 및 살포기, 압롤박스 등 액비수거·운반·살포장비.

이같은 사업을 신설하게 된 것은 저장액비수급안정 및 축분비료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분뇨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.

■소·돼지·닭 도축장 HACCP 전면 적용

종전에는 1일 평균도축실적이 소 30두, 돼지 3백두 및 닭 3만수 이상인 도축장에 한해 HACCP를 의무시행하던 것이 올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·돼지·닭 도축장에 HACCP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. 단, 도서지역은 제외.

■도축장 의무도축 대상 가축 확대

종전에는 소·말·양·돼지에만 적용되던 의무도축 대상 가축에 1월 1일부터는 닭·오리·사슴·토끼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꿩 등 8개 가축도 추가된다.

이는 판매목적의 식육에 대한 위생적 도살·처리 및 검사관의 위생검사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.

■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

이는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1월 1일부터는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등급판정 수수료가 징수된다. 두당 소 1,600원, 돼지 300원, 계란 50전.

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당초 2001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수입개방 등으로 수수료 징수시기를 2년간 유예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.

■소독설비 및 실시대상 확대, 벌칙 강화

종전에는 소독설비설치대상을 300㎡이상 농장과 도축장, 가축시장에 국한 하던 것이 집유장, 사료업체, 종축장, 부화장, 축분비료업체도 추가된다. 만약 설치를 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또 소독대상도 농장, 가축운송차량에서 원유, 동물약품, 사료, 분뇨운반차량까지 추가된다. 이는 병원체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의무화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.

■사체 처분시 환경오염 방지 의무화

사체 처분시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,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. 이는 살처분 가축 매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

발췌: 축산신문

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

협회지 제 46-2호 2003년 1월 9일(목)

제목2 : 도축장 출입시 차량소독 필수

가축운반자는 도축장 출입시 차량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하고, 도축업체는 월1회 이상 가축운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농림부는 구제역 청정성 유지를 위해 가축운반자 및 도축업체 준수사항을 지시했다.

가축운반자는 도축장 출입시 차량을 소독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, 농가도축시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또 소독실시대장을 지참하고, 농장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소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도축업체는 가축운반차량 도축장 진입시 소독, 가축 하차후 세차 및 소독여부를 확인하고,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했다.

발체: 농수산신문

제목3 : 농관원 12월 가축통계 조사 결과

한육우 사육마리수가 감소하면서 사육기반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다. 돼지는 콜레라 발생에도 불구하고, 사육마리수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또 닭은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감소했다. 국립축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1일 기준 가축통계 조사결과를 요약한다.

◆한육우=141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5만1,000마리(3.5%)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(140만6,000마리)에 비해서는 약간 늘었다. 그렇지만 가임암소는 60만5,000마리로 3개월 동안 1만3,000마리(2.1%)나 감소하는 등 좀처럼 증가하지 않아 송아지 생산마리수가 단기간에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전반적인 사육마리수 감소세에도 10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들의 사육마리수는 증가, 한가구당 평균 사육규모는 6.6마리를 유지했다. 사육농가수도 21만2,000가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.

◆돼지=897만4,000마리로 3개월 전에 비해 5만9,000마리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5만4,000마리가 많은 규모다. 이 가운데 어미돼지는 95만5,000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월령별로는 출하가 임박한 4~6개월령이 234만7,000마리로 사상 최고에 달하고, 2~4개월령 미만은 294만마리로 집계됐다. 사육가구수는 1만7,440가구로 늘어 가구당 평균 사육규모는 514.7마리로 줄었다.

◆젓소=54만4,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는 약간 늘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4,000마리가 줄었다. 가임암소는 36만9,000마리로 2,000마리가 줄어 최근 지속되는 우유 수급불균형을 반영했다. 사육농가수는 1만1,700가구로 줄면서 가구당 평균사육규모는 46.4마리로 늘었다.

발체:농민신문

TEL 031-391-9767,

FAX 031-395-6661

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-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

협회 구좌 : 농협 군포 남지점 : 장환달 1104 - 02 - 043981